

정보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본 정치적 정보의 처리*

노혜경†
아주대학교

정치적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Lasswell(1948)의 정보의 4요소 모형과 Chaiken(1994, 1989)의 휴리스틱-체계적 모델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동일한 정책내용을 다양한 출처인 것으로 제시하였을 때 정보수신자의 정치적 선호에 의해 정책에 대한 찬성여부가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중립적 정책에 대해 참가자의 선호정당과 정보출처가 일치하는 경우 더 찬성하는 휴리스틱이 나타났고, 선호 정당이 없는 경우 중립적 정책의 찬성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평소의 정치적 관심이 높고 태도가 확실한 경우 부분적으로 편향된 체계적 처리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정보출처에 대한 호감 평가에 있어서도 참가자의 선호정당과 정책출처가 일치하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정치적 정보의 처리 및 정치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휴리스틱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정치적 의사결정, 태도와 태도변화, 휴리스틱-체계적 모델, 편파처리, 정보처리

국가 기관과 정치인들은 수많은 논지와 정책과 공약들을 내세워 정치적 설득을 시도한다. 이러한 논지와 정책의 정보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되었을 때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의 질문에 대해 Hovland(1959), McGuire(2001) 등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반면 Zaller(1996)는 결코 미미하지 않으며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정답은 아마도 그 사이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Klapper(1960)는 유권자들의 정당 선호는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선택적인 정보 노출과 수용에 있다고 보았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태도와 관

심에 합치하는 정보를 더 주의하고 수용하며 반대쪽 의견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거부한다. McGuire(1985)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위협하는 자료들은 몰라서 행복하게 남기를 시도하면서(모르는 게 약) 바보들의 낙원에서 자폐적으로 지낸다”고 주장하였다. 주변에서도 흔히 특정의 정치인이나 정책은 특정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찬성을 이끌어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정치적 태도가 확고한 사람들은 이렇게 강한 저항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 설득이 어렵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은 정치적 정보에 관심이 없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

* 이 논문은 2012년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 되었음.

† 교신저자 : 노혜경,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E-mail: rrrhkk@gmail.com

며 단순하고 결정적인 단서에 의해 설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Ottari(2002) 등의 투표행동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정책과는 관계없이 인구통계학적 요소(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역 등)에 의해 정당과 정치인 등에 대한 선호가 결정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Ottari, Wyer, Deiger, & Houston, 2002).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서를 어떻게 수용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휴리스틱-체계적 모델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들이 처리되는 과정은 유권자의 특성과 기대에 따라,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경로가 가능하다. Chaiken, Liberman과 Eagly(1989)의 휴리스틱-체계적 모델(Heuristic-Systematic Model, 이하 HSM)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정보의 이중과정적 처리를 설명해주고 있다. 정치적 정보의 체계적 처리는 이를테면 정치적 정보들에 주목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찬반의 논지를 신중하게 숙고하여 의사결정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체계적 처리는 높은 수준의 인지적 동기와 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Chaiken et al., 1989; Petty & Cacioppo, 1986) 정치적 관심이 높거나 전문가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반면 휴리스틱 처리는 동기와 능력이 적은 경우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여 간단한 규칙이나 이용 가능한 단서, 경험, 직관 등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문가는 잘 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믿어도 좋다”, “많은 사람이 동의한 것은 옳은 것이다” 등 간단하고 직감적인 규칙은 사람들의 판단과 태도형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용한다.

HSM은 정보수용자의 동기와 능력이 낮은 경우 이러한 휴리스틱 처리의 개연성이 높아지지만 또한 동기와 능력이 높은 경우에도 휴리스틱 처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Chaiken et al., 1989). 즉 휴리스틱 처리과정과 체계적 처리과정의 가산적으로(독립적으로) 또는 상호작용적으로(상호의존적으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Eagly & Chaiken(1993)은 회석화가설, 편향가설로 이를 개념화 하였다. 회석화 가설(attenuation

hypothesis)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동기와 능력이 있는 경우 휴리스틱 단서는 체계적 정보처리의 영향으로 억제되고 희석화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편향가설(bias hypothesis)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서는 휴리스틱 단서가 정보의 타당성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주어, 기대와 일치하는 정보에 대해 “편향된 체계적 처리”를 한다고 보았다(Bohner, Moskowitz, & Chaiken, 1995). 그 조건은 첫째, 정보수용자의 동기가 매우 높아 체계적 정보처리의 개연성이 높고, 둘째, 정보가 모호하여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고, 셋째, 선행하는 정보나 기존의 태도가 새로운 정보의 타당성에 대한 특정의 기대를 하게 할 때이다. 그렇다면 정치적 정보의 처리와 판단에 있어서도 유권자의 동기와 능력에 따라 편향된 체계적 처리가 일어날 것인지를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휴리스틱

오늘날 정치적 정보들은 언론 매체, 인터넷, 또는 면대면 교류를 통해 거의 무제한적으로 풍부하게 제공된다. 이러한 정치적 정보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의사결정에 직접 간접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책임 있고 성숙한 유권자들이라면 이러한 정치적 정보들을 숙고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의사 결정에 도달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실제로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 휴리스틱 처리가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Mondak(1993)은 대부분의 투표자들은 일상에서의 시급한 문제에 처해 있고, 이것은 정치적 사안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치적 정보의 처리는 휴리스틱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휴리스틱적 단서는 상당히 다양하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선호하는 정당(Page & Shapiro, 1992; Tetlock, 1991), 지지를 표명하는 사람의 신뢰성(Mondak 1993; Boudreau 2009)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과 의식(Kam, 2005) 등에 따라 휴리스틱 또는 체계적 처리가 결정된다고 한다. Lau와 Redlawsk(2001)는 투표행동에 영향을 주는 휴리스틱으로 정당선호, 이데올로기, 지지자 단서, 여론조사 결과(합치 정보)와 후

보자의 외모 등 5가지 범주를 발견하였다. 위 연구자들은 과정추적 방법을 사용하여 어떤 종류의 정보들이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사용되는가를 추적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컴퓨터를 통해 정치쟁점에 대한 태도, 과거의 경험, 타인의 지지표명 등 여러 유형의 정보를 주고 주로 어떤 유형의 정보에 접근하였는지 기록하였다. 그에 의하면 상이한 참여자들은 상이한 유형의 휴리스틱 단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와 지지자 휴리스틱을 사용하고, 전문 지식이 적은 사람들은 후보자 외모 휴리스틱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다섯 종류의 휴리스틱 중 더 빈번히 사용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타인이 특정 정책/정치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지지자 휴리스틱'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 Mondak(1993)은 타인의 지지가 유권자의 의사표현의 의지를 증가시키며, 특히 정치주체에 대해 비교적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의견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집단정체성 역시 체계적 정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내집단의 의견을 선호하고, 외집단 의견과는 차별화하려는 욕구로 인해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Fleming & Petty, 2000). Cohen(2003)은 진보적 성향의 대학생들에게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연방정부의 기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평가하라고 하였다. 참가자의 반에게는 민주당(내집단)은 이를 반대하고 공화당(외집단)은 이를 찬성한다고 이야기해주고, 나머지 반에게는 정보를 주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참가자들은 당의 지지표명에 대한 정보가 없는 조건에서 프로그램에 더 찬성하였고, 자신들의 신념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내집단이 프로그램에 반대한다고 알려주었을 때 선택적 정보처리가 일어나 내집단의 입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에 대해 선택적 해석을 하고, 그 결과 프로그램을 더 반대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특정 정당이 프로그램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다른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들의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믿었으나 자신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즉 휴리스틱 처리는 의도성이나 자기주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Chaiken et al., 1989; Chen & Chaiken, 1999). 위의 선행 연구들은

볼 때 누가 어떤 휴리스틱을 사용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를 답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정보의 출처, 그리고 정보 수용자인 개인의 인지적, 동기적 요소들이 관여하므로 이들을 통합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정보출처-정보수신자 편파

정치적 정보에 대한 휴리스틱 또는 체계적 처리를 결정짓는 요소로서 Lasswell(1948)의 정보의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Lasswell은 누가(정보출처), 무슨 내용을(정보내용), 어떤 경로로(정보채널), 누구에게(정보수용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Who says what in which channel to whom with what effect?). 이 요소들은 모두 독자적으로 태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서로 연관되어 영향을 주기도 한다. Lasswell의 정보 요소 중 정보 출처, 정보의 내용, 정보수용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 세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정치적 정보가 처리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보출처의 특성으로 일반적으로 신뢰성과 전문성 등을 언급하는데, 신뢰할만한 출처(Chaiken & Maheswaran, 1994), 전문적인 출처(Bohner et al., 2002)는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Chaiken 등(1989)은 정보 출처의 특성은 수용자로 하여금 정보의 타당성에 대한 기대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보출처의 단서가 주어질 때 그것이 주는 기대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정보처리의 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테면 정보출처의 단서가 긍정적이면 정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단서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Bohner et al., 2002; Chaiken & Maheswaran, 1994; Erb, Bohner, Schmaelzle, & Rank, 1998) 정보 출처의 단서인 신뢰성 또는 전문성이 모든 정보수용자에게 동일한 방향의 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정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수신자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Ziegler & Diehl, 2003). 일상생활 속의 관찰에 의하면 누가 어떤 출처를 신뢰롭게 생각하는가는 개인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신자의 차이는 아마도 상이한 출처에 대한 편향의 방향을 증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가나 정치적 집단의 경우는 정보 출처의 단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상이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정치인/정당이 진보적이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진보적인 주장을 한다면, 진보적인 정보 수용자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보수적인 정보 수용자에게는 부정적일 것이다. 정보수용자의 특성인 유권자의 정당 선호, 이데올로기, 정치적 관심에 따라 동일한 정보에 대해 다른 해석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관찰자들이 동일한 관찰 내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현상은 관찰자 편향의 개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정보의 지각이 경험과 기대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출처)를 더 신뢰롭게 여기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정보처리의 편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Sherif(1935, 1936)의 사회판단이론(social judgment theory)은 이미 확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와 차이가 나는 주장은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그 뿐 아니라 중립적인 주장임에도 그 주장이 반대주장에 가깝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최소집단 이론(Tajfel, Billig, Bundy, & Flament, 1971),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 Turner, 1979; Turner & Reynolds, 2001), 자기범주화 이론(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도 역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최소집단 이론은 사람들은 소속집단의 성원들과 접촉하지도, 또는 관심사를 공유한다고 믿을 이유가 없음에도 단순한 사회적 범주화만으로도 내집단 편애와 집단 간 차이의 극대화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 소속만으로 공동의 정치적 신념이 공유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한 이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없다. 반면 사회정체성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집단 또는 사회적 범주와 동일시하고, 범주가 현저해질 때 사회정체성이 집단 간의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소속 범주와의 동일시는 따라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간 차이를 강조하며, 내집단의 성원들은 더 유사한 것으로 여긴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집단 정체감의 정도이다. 정체감이 높으면 소속 집단의 특성, 즉 정당의 이미지나 가치관을 공유하려는 동기도 높으리라 예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정당의 정치적 견해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정체감이 낮으면 정책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 동의 정도가 낮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정보의 내용-정보 수신자의 편파

정보 내용의 처리에 있어서 수신자의 사전 지식과 경험, 기대 등이 존재하면 하향처리가 일어나 객관적인 정보처리보다는 편파적 정보처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즉 사람들의 기억 속에 도식이 형성되어 있으면, 정보의 세부적 내용과 특성에 대한 고찰 없이도 기존의 태도에 근거한 정보처리가 일어나서 자신의 태도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는 쉽게 처리되지만 기존 신념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는 무시되기 쉽다. 특히 주제에 대해 확고한 태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휴리스틱 단서에 의해 태도가 변화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강한 설득 논지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나은영(1999)의 연구에서는 태도의 강도에 따라 제시된 논지의 설득효과를 살펴봤는데, 특정 주제에 대해 약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경우 주장의 강도에 관계없이 단서의 영향을 받는 반면(휴리스틱 처리), 강한 태도를 지니는 경우 약한 주장은 효과가 없고, 강한 주장은 기존 태도를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체계적 편파처리). 더불어 자신의 태도와 반대되는 강한 주장은 설득의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HSM은 휴리스틱 또는 체계적 처리에 관여하는 동기로 정확성 동기, 방어 동기, 인상 동기가 관여한다고 본다. 정확성 동기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정보를 공평하게 체계적으로 처리한다. 하지만 정보를 처리할 동기와 인지적 자원이 제한적이면 정확성 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정확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휴리스틱 단서를 사용한다. 반면 방어 동기는 자신의 태도를 유지하려는 동기로서, 개인의 신념은 자아 개념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자신의 가치관, 사회정체성, 개인적 특성과 관련한다. 따라서 방어 동기가 높으면 자아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적인 정보처리를

하게 된다. Giner-Sorolla, Chaiken(1997)과 Chen, Duckworth와 Chaiken(1999)에 의하면 방어 동기와 인지 능력이 모두 높으면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려는 방어동기에 의한 체계적 편파 처리가 나타나기 쉽다고 보았다. 즉 자신의 기존 태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여 편향된 체계적 처리를 하게 된다. 방어 동기가 휴리스틱 또는 체계적 처리 방식 중 어떤 것을 일으키는가는 충분성의 원리를 따른다. 즉 정보 수용자가 자신의 판단이 방어동기를 만족시킬 것이라는 확신수준에 달려있다. 자신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단서는 확신을 약화시키고, 따라서 방어 동기에 의한 체계적 처리를 일어나게 한다. 반면 자신의 태도와 부합하는 단서는 실제적 확신을 일으키고 따라서 체계적 처리가 덜 일어나게 된다(Chen et al., 1999).

위의 기제를 정치적 의사결정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어떤 정치적 정보나 정치인에 대한 기존의 태도가 확실하다면 이것이 휴리스틱 단서로 작용하여 이후에 제시되는 새로운 정보의 통합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태도가 확실한 경우 새로운 정보가 기존 태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체계적 처리가 일어나 그 정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가 더 극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보의 모호성과 체계적 편파처리

정보의 특성 중 정보의 명료성 혹은 모호성은 설득 효과에 영향을 준다(Bohner et al., 2002, Chaiken & Maheswaran, 1994; Ziegler & Diehl, 2003). 이론상으로 모호한 정보일 때 정보처리의 편향의 개연성이 가장 높다. 모호한 정보는 상이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호한 정보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도의 연구에 있어 정보의 모호성을 조작한 내용을 살펴보면 Bohner 등(2002), Chaiken과 Maheswaran(1994), Erb 등(1998), Petty와 Cacioppo(1984), Bohner, Chaiken과 Hunyadi(1994) 등의 경우 정보의 모호성을 특정 주제에 대한 같은 수의 강하고 약한 주장들로 구성된 혼합된 메시지로 조작하였다. 이는 모호성을 “하나의 대상에 대해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상태”라 정의

한 것이다. 이에 대해 Ziegler와 Diehl(2003)은 이러한 종류의 조작은 재해석이 가능한 편향된 처리의 증거를 남기고 따라서 결론으로 이끌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강하고 약한 논지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판단이 유인가 단서(cue of valence)에 동화된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긍정적/부정적 단서 때문에 주장이 더 혹은 덜 설득력 있다고 여겨져서가 아니라 강하고 약한 논지가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장 내용의 중요성이 상이함에서 편파가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상이한 해석 가능성과 상이한 정보 유인가가 혼합된 조작이라는 것이다. 특히 긍정적 단서가 있을 시에(예 신뢰하는 인물) 강한 주장은 더 가중치를 가지게 되고, 약한 주장에 적은 가중치를 가지게 된다. 반대로 부정적 단서에서는(예 싫어하는 인물) 약한 주장일 때 더 큰 가중치를 지니며, 강한 주장에 적은 가중치를 둘 수 있다(Ziegler & Diehl, 2003). 따라서 Ziegler는 모호한 정보는 같은 수의 강하고 약한 주장으로 조작하기 보다는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주장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명확하고 강한 주장) 또는 설득력이 약한 (명확하고 약한 주장) 주장, 또는 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조작하였다. 본 연구자는 추가적으로 정보의 모호성이란 또한 애매하고 막연하여 이 정보의 특성으로는 확실하게 어느 특정의 범주에 넣거나 또는 특정의 해석이 불가능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중립적 정보나 borderline의 경우이다. 정보의 출처가 모호하거나, 정보의 범주화가 불확실한 경우 정보 처리에 있어 편파적 처리가 더 나타날 것이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본 조사에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휴리스틱 또는 체계적 처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정보의 출처가 수용자의 선호 정당과 일치하면 더 찬성하고, 불일치하면 덜 찬성하는 것은 동기가 개입된 판단이며 따라서 휴리스틱이 가미된 것으로 본다. 반면 자신의 선호정당이나 정보 출처 단서와 관계없이 정보의 내용만으로 찬성하는 것은 체계적 처리라 볼 수 있다. 즉 체계적 정보처리는 정당선호, 출처, 내용이 합치하지 않을 때, 그리고 모호한 정보에 대해 내용을 따르는 것, 그리고 휴리스틱

정보처리는 정당선호, 출처, 내용이 합치하지 않을 때, 모호한 정보일 때, 출처 단서를 따르거나, 자신의 정당 선호에 기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라 보았다.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가설 1: 정보수신자의 특성 - 정보출처의 특성의 관계에 의한 편향

정치적 정보에 대해 체계적 정보처리가 일어난다면 자신의 신념에 맞는 정보는 출처와 관계없이 동의하고, 맞지 않는 정보는 출처와 상관없이 반대하는 ‘정보내용 따르기’ 경향이 나타날 것이며, 반면 휴리스틱 정보처리가 일어난다면 자신의 정당선호와 일치하는 출처의 주장은 내용과 관계없이 더 동의하고, 일치하지 않는 출처의 주장은 덜 동의하는 ‘단서따르기’의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정보수신자의 정당선호와 정보출처의 정당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중립적 정보에 대해 더 찬성할 것으로 보았다.

가설 2: 회색화 가설 대 편파가설(bias hypothesis)

회색화 가설을 따르면 체계적 처리의 경우 휴리스틱 단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편파가설을 따르면 체계적 처리의 동기가 높고, 제시된 정보가 모호하고, 기존의 태도가 특정의 기대를 하게 할 때 편향된 체계적 처리가 일어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태도가 확실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정보출처 단서의 영향을 받아 중립적 정보에 대해 더 찬성하거나 반대할 것이다.

가설 3: 정보 발신자에 대한 호감평가에서의 휴리스틱

호감이란 태도의 3요소 중 정서적 요소에 속하며 이는 다양한 인지적 요소가 수렴되어 호불호가 결정되는 것이며 행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정보의 출처에 대한 호감

평가는 투표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호감 형성에서도 정보출처의 특성과 수신자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 혹은 휴리스틱 처리가 나타날 것이라 보았다. 즉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체계적 처리: 정보출처에 대한 호감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보의 내용만으로 호감이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숫자의 진보적, 보수적, 중립적 정보를 제시하면 출처의 정보나 수신자의 특성의 영향을 받지 않아 호감 형성에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휴리스틱 처리: 정보출처의 단서가 정보처리에 영향을 준다면 정보수신자의 선호와 일치 여부에 따라 편향된 평가를 할 수 있다. 즉 정보출처-수신자의 특성이 일치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은 평가를 할 것이다.

연구 방법

정보출처, 정보내용, 정보수신자의 특성에 따라 정보처리가 체계적 또는 휴리스틱 처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내용(보수적 정책, 진보적 정책, 중립적 정책), 정보출처(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정보수신자(정당 선호: 보수, 진보, 무정당)의 3요인을 독립변수로 3x2x3의 설계를 하였다. 위의 내용은 다음의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설문지 구성

정보내용: 정책 정보의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현재 주요 정당의 정책들과 그 이외의 중립적 사안을 수집하고 그 중 35가지 사안을 선택하였다. 이를 문항으로 구성하여 석사와 박사 과정 중인 성인 16명과 일반 성인 14명에게 위의 정책 정보가 전형적인 진보정당의 주장인가, 전형적 보수정당의 주장인가, 또는 당의 범주가 모호한 중립적 주장인가를 1(전형적인 보수정당 정책)부터 11점(전형적인 진보정당 정책)까지의 11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문항들의 Cronbach's α 는 .77이며 전체와의 상관이 높은 문항들을 선별하여 진보, 보수, 중립적 주장을 각 5문항씩 총 15개의 주장을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선별된 15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6이다. 이 문항들은 제시되는 순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순서를 바꾸어 6가지 상이한 버전으로 제작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여러 설문지 유형에 할당되었다. 조사에 사용하였던 정책 문항은 다음과 같다:

보수정당의 정책문항

- 공기업의 민영화
- 통일 이후의 미군 주둔
- 대학의 기여입학제 도입
- 기업의 법인세 감세
- FTA의 확장

진보정당의 정책문항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폐지
- 핵발전소 설립 중지
-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허용
- 외국인 노동자의 4대 보험
- 국가의 언론통제 반대

분류가 모호한 정책문항

- 담배값 인상
- 인공위성 개발
-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지원
- 중남미와 아프리카 시장 진출
-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정보출처는 위의 정책에 대한 주장한 사람이 우리나라 양대 정당인 새누리당 또는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의 K의원이라 알려주었다.

정보수신자의 특성으로는 참가자가 선호하는 정당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존하는 당명의 예시를 주고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새누리당, 자유선진당은 보수정당으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당

으로 구분하였다. 그 이외의 기독교당, 녹색당은 기타당으로 분류하였다.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고 표기한 사람은 정당선호유보로 분류하였다. 표 1은 세 독립변인들의 실험조건의 개관을 표기하였다.

표 1. 정당선호, 정보출처, 정보내용의 변인을 포함한 실험조건의 구성

정당 선호	보수		진보		선택유보	
정보 출처	새누리	민주 통합	새누리	민주 통합	새누리	민주 통합
정보 내용	좌	중	우	좌	중	우

중속변인으로는 각 정책 주장에 대한 찬성여부, 정보 출처에 대한 호감, 평소의 정치와 정책에 대한 관심정도, 그리고 자신의 답변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1부터 10까지의 10점 리커트 척도에 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수도권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대학의 학생들과 수도권외의 시민을 대상으로 “정당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고 알려주고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 성인 참가자들의 일부는 대학생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을 부탁하여 수집하였고, 일부는 수도권 평생교육원의 수강자 중에서 수집하였다. 설문에 응한 보상으로 작은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의 답변이 완전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답된 설문을 제외하고 총 30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들의 성별은 여성 42.6%, 남 57.4%였고, 연령의 분포는 20세에서 65세까지로 평균연령은 37.5세이다. 교육 정도는 고졸 27.6%, 대학재학생 30.9%, 대졸 30.6%, 석사 이상이 7.9%였다. 참가자의 선호 정당은 새누리당 31.9%, 민주통합당 33.6%, 통합진보당 6.9%, 자유선진당 3.3%, 기타 기독교당, 녹색당, 사회당, 세균혁명당이 각 0.3%, 그리고 없음으로 표기한 사람은 23%이다. 선호 정당은 다시 보수정당(새누리당, 자유선진당), 진보(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정당선택유보로 분류하였다. 극히 소수만이 답한 기타 정당은

표 2. 정보 출처, 선호정당, 정보유형에 따른 정치적 정보에 대한 태도

선호정당	출처: 새누리			출처: 민주통합		
	보수	유보	진보	보수	유보	진보
진보문항	5.93	6.55	6.4	5.14	6.52	6.44
중립문항	7.59	7.84	5.98	6.46	7.66	7.37
보수문항	5.48	4.53	3.91	5.2	4.62	3.46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표 1의 각 칸은 14명부터 17명의 참가자들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조사에 응한 참가자들의 학력 및 성별과 정당 선호의 관련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조사한 결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chi^2=6.689$, $df=10$, $p < .05$; $\chi^2=.956$, $df=2$, $p < .05$). 또한 연령에 따른 정당 선호의 관계도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F(43, 250)=1.195$, $p < .05$).

연구 결과

가설 1은 정보출처 - 정보수신자의 관계에 의한 편파에 대한 것이었다. 편파처리가 일어난다면 단서가 모호한 정보에 대해 정보출처-정당선호의 관계에 따라 찬성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각 조건에서 정책에 대한 찬성여부에 대한 주요 평균값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평균값의 비교분석 결과 중립적 정보에 대해 정당출처와 선호정당이 일치하면 찬성을 더 하였고(새누리출처 7.59, 민주통합출처 7.37), 일치하지 않는 경우 덜 찬성하였다(새누리출처 5.98, 민주통합출처 6.46). 또한 변량분석 결과 정보출처와 선호정당의 상호작용은 중립적 정보의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2, 298)=16.235$, $p < .001$). 보수적 정당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중립정보를 새누리당 출처라고 알려주면 민주통합당의 출처라고 알려주었을 때보다 더 찬성하였으며, 진보적 정당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민주통합당의 출처라고 알려주면 더 찬성하였다. 그러나 정당 선호를 유보한 사람들은 정보 출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등한 수준의 찬성도를 보였다(그림 1 참조). 즉 정당 선호가 확실한 경우는 출처 단서의 영향을 받아 휴리스틱 처리가 이루어지고, 정당 선호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처 단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체계적 처리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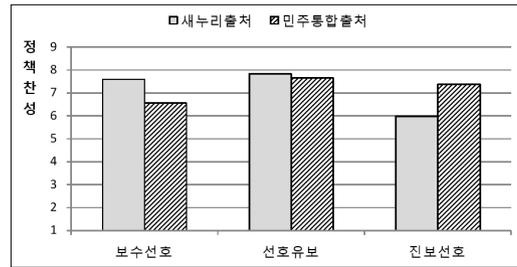


그림 1. 정당선호와 정보출처에 따른 중립정보의 찬성 정도

추가적으로 정보의 출처와 정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선호정당에 따른 찬성 정도가 어떠할지를 분석하였다. 보수정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보수정당 의원이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 진보 정당 의원이 주장할 때보다 더 높은 찬성을 보였으며 ($M=5.93$ vs. 5.14 ; $F(1, 106)=9.003$, $p < .01$), 더 나아가 보수정당 의원이 보수적 주장을 하는 것($M=5.48$)보다 다소 높은 찬성을 보였으나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_{(30)}=1.342$, $p > .05$). 반면 진보정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진보정당의 의원이 보수적 주장을 하는 경우, 보수 정당 의원이 주장하는 것보다 다소 낮은 찬성도를 보였다($M=3.46$ vs. 3.91 , $F(1, 121)=3.936$; $p < .05$)(그림 2 참조). 또한 보수정당 선호하는 사람들은 정책 문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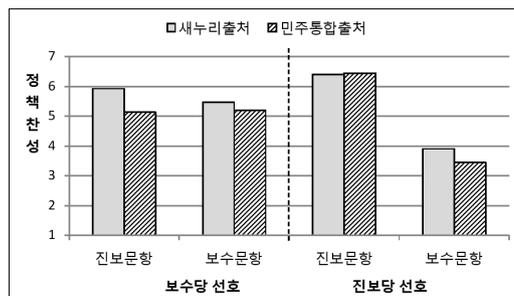


그림 2. 정보출처, 정당선호, 정보내용에 따른 정보처리

내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진보문항과 보수문항의 평가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진보정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진보문항을 보수문항보다 큰 차이로 더 찬성하였다.

가설2는 HSM의 회석화 가설과 편향 가설을 조사하였다. 체계적 처리 동기가 높은 경우 휴리스틱 단서의 의미가 축소될 것인지 또는 체계적 편향이 일어날지에 대해 정보 수신자의 동기는 참가자의 평소의 정치적 관심 정도로, 그리고 태도의 강도는 자신의 답변에 대한 확신 정도를 통해 조사하였고, 또한 동기와 태도 확실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해 보았다. 정치적 관심과 태도의 확실성은 각각 중앙치($Md=6.00$; $Md=8.00$)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중립 정보에 대한 찬성 정도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t -검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치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_{(238)}=1.41$, $p=.12$).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정치적 관심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태도의 확신에 따른 차이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나($t_{(237)}=1.65$, $p=.07$) 미약한 경향성을 보이므로, 이번에는 태도의 강도가 상위 25%($M \geq 9.00$)인 집단과 하위 25%인 집단($M \leq 6.00$)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_{(180)}=2.12$, $p < .05$). 태도의 확신 정도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정보출처의 영향을 받아 중립적 정보에 대해 더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정치적 관심과 태도의 강도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두 경우 모두 $p > .05$). Bohner는 편향가설의 조건으로 체계적 처리의 동기가 높고, 단서가 모호하며, 선행 정보나 기존의 태도가 제시된 정보에 대해 타당성의 기대를 하게 할 때라고 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는 정치적 태도의 확신이 강하고, 정책 문항 내용의 범주화가 모호하고, 정보출처가 찬성과 반대의 기대를 일으킬 때 양극단집단 비교의 결과에서만 체계적인 편향처리가 나타난 것이다.

가설 3은 정보 출처에 대한 호감 평가에 있어 체계적 또는 휴리스틱 처리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출처의 소속이 내집단/외집단인지에 의해 호감도가 영향을 받는가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체계적 처리가 일어난

다면 동일한 개수의 보수적, 진보적 그리고 중립적 문항이 제시되었으므로 내집단 외집단 단서에 의한 호감 평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선호하는 정당에 따라 정보 출처의 호감 정도가 다른가를 일변량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선호정당과 정보출처의 주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둘의 상호작용은 유의하게 나타났다($F(2, 286)=8.003$, $p < .001$). 보수정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새누리 출처에 대한 호감이 높고($M=6.10$), 진보정당을 선호하는 사람은 민주통합 출처에 호감이 높았다($M=5.85$). 반면 선호 정당이 없는 사람들은 양 당의 출처에 대한 호감을 가장 낮게 표시하여 새누리당 출처에 대해서는 진보정당 선호자들과 유사하게 평가하였고($M=5.11$ vs 5.06), 민주통합당 출처에 대해서는 보수정당 선호자들과 유사하게 평가하였다($M=4.83$ vs 4.74). 그림 3은 정당 선호에 따라 정보 출처에 대한 호감의 결과를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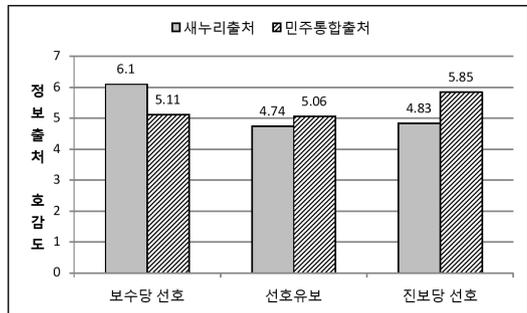


그림 3. 정당선호에 따른 정보출처의 호감 평가

정보출처와 정당선호의 상호작용이 호감에 주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체계적 처리가 아닌 휴리스틱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F(2, 286)=8.003$, $p < .001$) (그림 4 참조). 즉 같은 정보가 주어져도 보수정당을 선호하는 참가자는 보수정당 의원을 더 호감이 간다고 평가하였으며, 진보정당을 선호하는 참가자는 진보정당 의원에게 더 높은 호감을 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보수정당을 선호하는 참가자는 진보정당을 선호하는 참가자들보다 두 정당 위원들에게 더 호의적인 평가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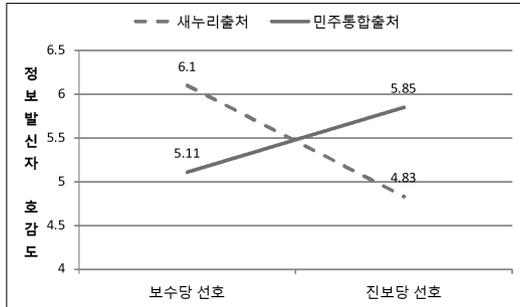


그림 4. 정보출처와 정당선호의 상호작용에 따른 정보출처의 호감 평가

논 의

본 연구는 휴리스틱-체계적 모델을 정치적 정보의 처리에 적용시켜 본 것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휴리스틱 처리가 일어나는 조건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가설 1의 결과는 정보출처와 정보수신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보의 내용이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립적 정보에 대한 출처를 보수정당 또는 진보정당으로 알려주었을 때 수신자의 정당선호와 일치하면 더 찬성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신자가 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는 중립정보에 대해 출처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찬성 정도를 보였다. 이는 곧 같은 정보라 할지라도 수용자의 정당 선호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편파처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Mackie(1986)의 연구에서 주장한 내집단 전달자의 메시지를 외집단 전달자의 메시지보다 더 잘 수용하는 차별효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정치적 범주가 명확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보출처와 정보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기대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보수정당을 선호하는 참가자들은 보수정당 의원이 진보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 주장보다도 더 찬성을 하였다. 진보정당을 선호하는 참가자들은 진보정당 의원이 보수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가장 낮은 찬성 정도를 보였다. 이렇게 출처의 단서가 주는 기대와 정보의 내용이 합치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출처 단서의 휴리스틱보다는 내용을 고려하는 체계적 처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정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진보정당 의원의 보수적 주장에 찬성 정도가 낮은 이유는 내집단 일탈자로 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Schachter(1951)의 실험에서는 집단의 성원들이 토론을 할 때 가짜 참가자로 하여금 집단의견에 동조하거나, 의견을 달리하거나, 의견을 달리하다 동조하도록 하여 반응을 살펴본 결과, 내집단에 동조하기를 거부하는 일탈자에게 가장 많은 의사교환이 집중되고 더 나아가 배척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Abrams등(2005)은 “주관적 집단역학”에서 일탈자들은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외집단과 구분되는 내집단의 독특성을 흐려놓으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 성원이 부정적 행동을 하는 경우, 동일한 행동을 하는 외집단 성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검은양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Abrams, Hogg, & Marques, 2005). 서경원과 김혜숙(2008)의 연구에서는 내집단 일탈자로 인해 내집단의 이미지가 위협받기 때문에 내집단을 보호하려는 동기가 촉발되고, 따라서 내집단의 보호 전략으로서 이탈자를 폄하하는 검은양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이는 또한 역으로 내집단 의견을 함께하는 외집단 구성원을 내집단 구성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과도 관련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보수정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왜 보수적 문항보다 진보적 문항에 더 찬성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다만 첫째, 참가자들이 문항 내용을 보수적, 중립적, 진보적 문항으로 이해했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사전 조사에서는 이를 조사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문항 내용의 정당 범주성 지각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았으므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둘째, 보수정당 지지자들이 제시된 문항 내용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문항의 정책들이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고 생각해서일 수 있다. 더불어 보수적/진보적 주장들에 대한 보수적/진보적 성향의 참가자의 답변에서 나타난 비대칭성은 인지적 특성(Jost, Glaser, Kruglanski, & Sulloway, 2003; Tetlock, 1983)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조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이므로 이를 알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가설 2는 희석화가설과 편향가설을 조사한 것으로

정치적 관심이 높고 태도가 확실할수록 휴리스틱 단서가 무의미하게 되는지 또는 더 편향된 체계적 처리가 나오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평소 정치적 사안에 대한 관심도와 자신의 답변에 대한 확신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정치관심도에 의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답변에 대한 확신은 극단집단비교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부분적으로 가설이 검증되었다. 답변에 대한 확신이 매우 강한 사람들은 중립 정보에 대해 출처단서의 영향을 받아 더 편향된 처리를 하였고, 편향 가설이 부분 검증되었다.

가설 3은 정보 출처에 대한 호감평가에 있어 정보적 영향을 받는지(체계적 처리), 또는 정보출처, 정당선호에 의한 영향을 받는지(휴리스틱 처리)를 조사하였는데 여기서도 휴리스틱 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의 내용과 관계없이 출처의 정당과 참가자의 선호정당이 일치하면 더 호감을 가지고, 일치하지 않으면 낮은 호감을 보였다. 다만 호감 형성에서의 휴리스틱 또는 체계적 처리의 효과를 알기 위해 정보의 내용(3조건), 정치적 선호(3조건), 그리고 정보 출처의 단서(2조건)만으로 조작하였는데, 정보 출처의 조건을 한 가지 더 추가하여 가상의 정당을 설정하였다면 체계적 처리의 비교기준이 마련되어 조금 더 확실한 해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정당에 대한 범주화가 곧 정보처리의 편향을 가져오고, 정치적 갈등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당출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의 정당선호와 관계없이 공공의 지지를 얻기 쉬우나, 정당 출처가 단순히 주어지는 것만으로 정보처리가 편향되고,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의 주장에 적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즉 중요한 정책은 정당의 단서없이 중립적으로 또는 초당파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열린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더 지지를 얻어내기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정치적 정보처리 및 정치적 태도의 형성은 이번 조사에서 다룬 변인 이외에 더 많은 상황맥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본 조사는 극히 일부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 가

능성이 제한적이다. 그리고 체계적인 정보 처리자와 휴리스틱 사용자의 차이는 동기과 능력 이외의 다른 개인적 변인들이 더 개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가자의 약 24%에 달하는 선호 정당이 없는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층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연령대와 교육 정도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정치관심 정도는 평균 4.83으로 보수정당 선호자($M=5.78$)와 진보정당 선호자($M=6.15$)보다 낮고, 태도의 확신에 대해서도 평균 3.45로 보수정당 선호자($M=4.26$)와 진보정당 선호자($M=4.45$)보다 낮다. 이 값은 정치에 대해 관심도 덜하고 태도에 대한 확신도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이 정치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정의한대로 출처단서나 정당선호와 관계없이 정보의 내용만을 따랐다는 의미의 체계적 처리이다. 또한 이들의 무당파성이 자신의 특성과 유사한 정당이 없음을 의미하는지, 정치에 대한 실망에 기인하는 것인지, 또는 정치적 자기효능감의 부족으로 참여를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인지적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이 높은지, 다른 사회적 동기가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태도와 태도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주로 휴리스틱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는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정보출처와 정보수신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대칭적인 방향으로 휴리스틱이 작용함을 보여준 데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설득과 태도변화의 연구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높고 설명해주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 정치적 설득과 의사결정에서 더 나아가 국가 간 또는 집단 간의 관계, 광고와 소비행동 분야에서도 정보의 처리가 정보내용, 정보출처, 그리고 수신자의 특성에 따라 편향되기도 하며, 상이한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나은영 (1999). 3수준 태도변화 이론의 검증: 태도 강도에 따른 내외집단 전달자와 메시지 강도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65-90.

- 서경원, 김혜숙 (2008). 검은 양 효과: 이탈정도의 영향과 내집단 이미지우려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단일호*, 238-239.
- Abrams, D., Hogg, M. A., & Marques, J. M. (2005). A social psycholog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In D. Abrams, M. A. Hogg, & J. M. Marques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clusion and exclusion*, 1-23.
- Bohner, G., Chaiken, S., & Hunyadi, P. (1994). The role of mood and message ambiguity in the interplay of heuristic and systematic process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 207-221.
- Bohner, G., Moskowitz, G. B., & Chaiken, S. (1995). The interplay of heuristic and systematic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In W. Str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6*, 33-68.
- Bohner, G., Ruder, M., & Erb, H. P. (2002). When expertise backfires: Contrast and assimilation effects in persuas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1*, 495-519.
- Boudreau, C. (2009). Closing the Gap: When do cues eliminate differences between sophisticated and unsophisticated citizens?" *Journal of Politics, 71*, 964-976.
- Chaiken, S. (1980). Heuristic versus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use of source versus message cues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52-66.
- Chaiken, S., Liberman, A., & Eagly, A. H. (1989). Heuristic and systematic processing within and beyond the persuasion context. In J. S. Uleman, & Ja.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New York: Guilford Press, 212-252.
- Chaiken, S. & Maheswaran, D. (1994). Heuristic processing can bias systematic processing: Effects of source credibility, argument ambiguity, and task importance on attitude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460-473.
- Chen, S., & Chaiken, S. (1999). The heuristic-systematic model in its broader context. In S. Chaiken, & Y. Trope (eds.), *Dual-process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Guilford, 73-96.
- Chen, S., Duckworth, K., & Chaiken, S. (1999). Motivated Heuristic and Systematic Processing. *Psychological Inquiry, 10*, 44-49.
- Cohen, G. L. (2003). Party over policy: The dominating impact of group influence on political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08-822.
- Eagly, A. 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Fort Worth, TX: Harcourt Brace Jovanovich.
- Erb, H. P., Bohner, G., Schmaelzle, K. & Rank, S. (1998). Beyond conflict and discrepancy: Cognitive bias in minority and majority influ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620-633.
- Fleming, M. A. & Petty, R. E. (2000). Identity and persuasion: An elaboration likelihood approach. In D. J. Terry & M. A. Hogg (eds.), *Attitudes, Behavior, and Social Context: The Role of Norms and Group Membership*,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71-199.
- Giner-Sorolla, R., & Chaiken, S. (1997). Selective use of heuristic and systematic processing under defense motiv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84-97.
- Hovland, C. I. (1959). Reconciling conflicting results derived from experimental and survey studies of attitude change. *American Psychologist, 14*, 8-17.
- Iyengar, S. & Simon, A. (2000). New perspectives and evidence on political communication and campaign effec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 55, 149-169.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uloway, F. J.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 339-375.
- Kam, C. D. (2005). Who toes the party line? Cues, Valu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Political Behavior*, 27, 163-182.
- Klapper, J. T. (1960). *The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s*. Glencoe, IL: Free Press.
- Lasswell, H. D. (1948).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In L. Bryson (ed.), *The communication of ideas: Religion and civilization series*. New York: Harper & Row. 37-51.
- Lau, R. R. & Redlawsk, D. P. (2001).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ognitive Heuristics in Political Decision Mak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 951-971.
- Mackie, D. M. (1986). Social identification effects in group pola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720-728.
- Margues, J., Abrams, D., & Serodio, R. G. (2001). Being better by being right: Subjective group dynamics and derogation of in-group deviants when generic norms are undermin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436-447.
- McGuire, W. J. (2001). After a half century of election studies: Whence, where, and whither? In: E. Katz & Y. Warshel (Eds.), *Election studies: What's their use?*, New York: Westview, 15-57.
- McGuire, W. J. (1986). The myth of massive media impact: Savagings and salvagings. *Public Communication and Behavior*, 1, 175-259.
- McGuire, W. J. (1985).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In G. Lind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233-246.
- Mondak, J. (1993). Source cues and policy approval: The cognitive dynamics of public support for the Reagan agend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 186-212.
- Ottari, V. C., Wyer, R. S., Deiger, M., & Houston, D. (2002). The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Candidate Evaluation and Voting Preference, In: V. C., Ottari, R. C. Tindale, J. Edwards, F. B. Bryant, L. Health, D. C. O'Connell, Y. Suarez-Balzacar, & E. J. Posavac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Politics*, 3-28.
- Page, B. I. & Shapiro, R. Y. (1992). *The Rational Public: Fifty Years of Trends in Americans' Policy Prefer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tty, R. E., & Cacioppo, J. T. (1986).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Central and peripheral routes to attitude change*. New York: Springer.
- Tajfel, H., Billig, M. B., Bundy, R. P., & Flament, C. (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49-178.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33-47.
- Tetlock, P. E. (1991). An alternative metaphor in the study of judgement and choice: People as politicians. *Theory and Psychology*, 1, 451-477.
- Tetlock, P. E. (1983). Cognitive style and political ide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18-126.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 S. (1987). (Eds.),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Blackwell.
- Turner, J. C. & Reynolds, K. J. (2001). The social identity perspective in intergroup relations:

Theories, themes, and controversies. In R. Brown & S. Gaert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ntergroup processes*, Malden, MA: Blackwell, 133-152.

Zaller, J. (1996). The myth of massive media impact revived: New support for a discredited idea. In D. C. Mutz, P. M. Sniderman, & R. A. Brody (Eds.), *Political persuasion and attitude chang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7-78.

Ziegler, R. & Diehl, M. (2003). Is politician A or politician B more persuasive? recipients' source preference and the direction of biased message process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623-637.

Blind Commitment The Biased Processing of Political Information by Interaction of Information Source, its Recipients, and its Contents

Ro Hea Kyung
Ajou University

In contemporary society, the political topics, party policy, and other political informations are widely supplied through a variety of medias.. But people do not have the ability or motivation to handle a lot of information carefully. As a result, the sel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comes to occur, either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Therefore, specific informations are even more accepted by recipients and so they would affect much more their political decision-making (Iyengar & Simon, 2000). How do people deal with and evaluate the political informations? How are our political attitudes formed and maintained? What are the personal factors involved in the processing of political information?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manipulated information source, information contents, and information recipients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Lasswell's model of five major components. The findings show that under conditions to systematic processing, participants are more biased, and the direc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depend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ources and information recipients.

Keywords: political decision-making, political attitudes, heuristic-systematic model, biased information processing

1차원고 접수일 : 2012년 10월 12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2년 11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12년 11월 26일